

리얼 뷰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제시카의 <뷰티바이블>



Jessica's
All about Beauty



KBS N Magazine

발행인 이준용
 발행일 2016.05.02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전화 02-787-3297
 기획 홍보팀 이용주, 최고은, 이지희
 제작·디자인 디앤씨(02-792-5444)

웃음이 희망입니다



CONTENTS

MAY. 2016 VOL.02

표지 이야기

제시카가 <뷰티바이블 2016 S/S>의 뷰티 멘토로 돌아왔다. 소녀시대 탈퇴 후 1년 반 만이다. 꾸밈없는 솔직함으로 뷰티 포인트를 콕콕 집어주는 멘토를 누가 싫어할까. 더 예뻐지고 싶은 당신을 위해 제시카와의 인터뷰를 준비했다. Cover story에서 만날 수 있다.

04 N special

특집 Come Together

최강남녀 & 태양의 후예

양육과 훈육 사이

가족의 달, 야구로 놀자

14 Cover story

뷰티 멘토로 돌아온 제시카

16 On air

로봇과 인간, 두 문명의 충돌 <로보텍스>

17 Review

TV, 육아를 부탁해

18 N partner

한국배구연맹 구자준 총재 인터뷰

주주사 에이스회원권거래소

20 N news

KBS N 춘계 체육대회

22 Notice

KBS N 페이스북 좋아요!



<KBS N 매거진>은 매달 첫째주 월요일에 발행됩니다.

소식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거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나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 미디어센터 9층 홍보팀 이메일 pr@kbsn.co.kr

Come Together

5월은 '가족의 달'이다. Come Together. KBS N의 6개 채널을 모두 모아보았다.
남녀노소,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즐겁게 즐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태후로 입덕했지 말입니다



태후 <태양의 후예>의 줄임말.
낮선 땅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사랑과 성공을 꿈꾸는
젊은 군인과 의사들을
통해 삶의 가치를 담아낸
블록버스터급 휴먼 멜로
드라마.

입덕 어떤 분야의 덕후가 됐다는
뜻이다. 덕질을 잠시 쉬는
것을 휴덕, 덕질을 그만두는
것을 탈덕, 숨어 있는
덕후들을 숨덕이라 한다.

전국 덕력 자랑 <최강남녀>가 첫방으로 <태양의 후예>를 선택했다.
'레알 특전사'부터 '한드중독 대륙남'까지, 전국의 태후 덕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함께하니 이보다 재미날 수 없다.

“덕후는 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바닥에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명언이다. <최강남녀>는
덕후 생활을 오래하면 축적되는 힘, 즉 ‘덕력’을 자랑한다. 별난
취미, 별난 세계관을 가진 덕후를 찾아 ‘덕밍아웃’시키고, 이들의
덕력을 검증한 후 최강 덕후를 가리는 버라이어티 예능이다.

안구 학대 오프닝도 <최강남녀>에선 ‘레귤러’

첫 녹화 현장을 찾았다. 등장부터 요란하다. 어디서 헬리콥터 소
리가 나더니 장동민, 이상민, 황재근이 군복 차림으로 등장한다.
스튜디오에 파병된 알파팀이다. “피부만 보면 내가 유시진(송중
기 분)이지.” 황재근의 말에 장동민이 권총을 뽑아든다.
김일중 아나운서는 한 발 늦게 등장한다. ‘오전엔 되게 예쁘고, 오
후엔 겁나 예쁜’ 강모연(송혜교 분)으로 변신하느라 시간이 걸린
모양이다(실상은 ‘100미터 이병헌’으로 불리던 논란훈련소 조교

에 가깝다). 황재근은 속이 메스꺼린다며 입을 막고 쓰러지고, 상
황극에 돌입한 이상민은 그의 머리를 잡고 뽀뽀를 한다. 발연기
가 난무하는 ‘안구 학대’ 오프닝이다.

남들에게 별난 취미, 별난 세계로 비치는 것들이 <최강남녀>에
선 참 ‘레귤러’하다. 네 MC는 “1%의 특별한 취향을 존중해 입덕
의 길로 이끈다”는 사명감으로 뽀뽀 뭉쳐 있다. 하지만 <태양의
후예>는 남다르다. 막방 시청률이 38%를 넘으며 일찌감치 국민
드라마 반열에 올라섰다. 주변에 숨덕(숨은 덕후)들이 넘쳐난다.
웬만큼 알아서는 명함도 못 내민다.

‘태후 덕후’를 자처하는 네 남녀가 출연했다. 24시간 유시진 없이
에 빠진 주부, 서상사 바라기 여군 지망 여고생, 한국 드라마 마니
아인 중국인 통역사, 알파팀의 실제 모델인 707 특임대 출신 예
비역 중사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의 ‘덕심 토크 배틀’이 불꽃 튀듯
이어진다.





심쿵주의보, 돌아온 사춘기

수요일 저녁만 되면 주부들은 예민해졌다. <태양의 후예>(이하 '태후') 본방 사수를 위해 9시에는 집안일을 끝내고 채널 고정 에 들어갔다. 회가 거듭될수록 남편들은 슬슬 눈치를 봐야 했다. 급기야 '태양의 후예에 대비하는 남편의 행동요령'이라는 글이 SNS에 돌기 시작했다. 다섯 가지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하나, 수·목요일에는 반드시 저녁식사를 해결하고 집에 들어간다. 둘, 최소한 9시 이후부터는 본방 사수를 준비하기 시작하므로 신경 쓰이지 않게 해야 한다. 셋, 10시 이후에는 감정 이입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말을 거는 것은 재앙을 초래한다. 가능하다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좋다. 넷, 본방 후에는 송중기의 잔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까지 얼얼 거리지 않는 편이 낫다. 다섯, 주말에 재방송이나 VOD 몰아보기를 할 경우 잔영이 더욱 강력하므로, 집안에서는 숨죽이고 다소 곱한 자세로 다닐 필요가 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야기 3종 세트가 있다. 군대, 축구,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송중기가 다 바꿨다. 다음 날 친구들을 카페에서 만나 '태후' 얘기로 수다를 떠다. KBS Drama 채널의 재방송도 놓치지 않는다. 사춘기? 다시 왔다.

대륙을 들었다 놔다

중국에서 '태후'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사전 제작으로 중국에서 동시 방영된 결과다. 바이두의 동영상 플랫폼 아이치이에서 <별에서 온 그대>가 기록한 20억 뷰를 가볍게 넘어섰다. 특전사 군복을 입은 유시진 대위가 찍힌 5만원 지폐가 등장하는가 하면, '태후' 명장면을 패러디한 사진들로 SNS가 뜨겁다.

송중기 군복과 선글라스, 송혜교 립스틱은 일찌감치 동났다. 송중기 때문에 이혼율이 늘었고, 한국 드라마를 몰아보다 급성 녹내장에 걸려 실명 위기에 처한 여대생이 있는가 하면, 중국 공안은 '송중기 상사병'에 시청 자제 경고를 내보내기도 했다. 어디 중국뿐인가. 태국은 총리까지 나서 '태후' 시청을 독려했다. 30여 개국에 판권이 팔려 인기몰이에 들어갔으니, 조만간 지구를 들었다 놓을 기세다.

술까, 이젠 심하지 말입니다

덕심에 금이 가도 어쩔 수 없다.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300만 예비역들의 몰입도 방대한 장면들 꽤 있다. 유시진 대위가 강모연과 데이트를 즐기던 중 부대에 비상이 걸리고, 유시진을 태우러 부대에서 헬기를 보낸다. 현실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에서 헬기 띄우려면 별(장군) 정도는 달아야 한다. 보통은 택시 타고 복귀한다.



전국 덕력 자랑 최강男女

전국 덕력 자랑 <최강남녀>는 KBS Joy 채널의 새 예능으로 5월 3일 오후 5시 10분 첫 방송된다.

고가의 장비인 야간 투시경을 라면 먹는 데 쓰는 건 그렇다 치자. 사격 훈련에서 서대영(진구 분) 상사가 사선을 가로지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직 해임되거나 영창 가야 한다. 아니면 총 맞아 죽던가.

특전사 군인은 간부라서 휴대폰 쓰지, 무전기는 잘 안 쓴다. 바쁜 작전 중에 빅보스, 울프 같은 콜사인을 쓰는 것도 현실과 맞지 않다. 그냥 1번, 2번 하고 만다. 특전사 대원들이 밀대로 청소하고, 삼 들고 작업하고, 잡초 뽑고 있으면 그 드라마 망한다. 알통 구보라면 또 모를까.

'태후' 최강 덕후를 가리는 '태후 능력고사'가 시작된다. 덕력이 충만해야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이다. 네 명의 출연자들 중 누가 우승을 거머쥘까? 모두의 예상을 벗어난 뜻밖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태후 능력고사

당신의 덕력은 얼마?

<최강남녀>의 '태후 능력고사'를 흥내내어 OX 퀴즈를 준비했다. 여러분도 도전해보시라. 정답은 22p. N pick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
|---------------------------------|---|
| | ○ × |
| ① 강모연이 교수 임용에 떨어진 횟수는 세 번이다 | ☐ ☐ |
| ② 서대영의 사촌 동생은 항공사 승무원이다 | ☐ ☐ |
| ③ 유시진은 지진 때문에 아버지 전역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 ☐ ☐ |
| ④ 하자애의 발사이즈는 235mm이다 | ☐ ☐ |
| ⑤ 유시진과 강모연이 발견한 지뢰는 4개다 | ☐ ☐ |
| ⑥ 납중독에 걸린 아이가 사는 곳은 도깨비 마을이다 | ☐ ☐ |
| ⑦ 이치훈과 해성병원 이사장은 친척 관계다 | ☐ ☐ |
| ⑧ 강모연은 유시진이 쓴 총에 오른쪽 어깨를 맞았다 | ☐ ☐ |
| ⑨ 강모연과 윤명주의 과거 남자친구는 김윤기이다 | ☐ ☐ |
| ⑩ 알파팀의 스나이퍼 최우근 중사의 콜사인은 스누피다 | ☐ ☐ |

* 2개 이하: 한 줄로 찍어도 이보다 낫지 말입니다
3~5개: 제법이지 말입니다
6~8개: 태후의 숨덕? 덕미야웃하시지 말입니다
9개 이상: 덕력 인정. <최강남녀> 나오시지 말입니다

양육과 훈육 사이

“울고불고하는 아이를 그냥 내버려둬? 아니면 혼썰을 내?”
내 아이 훈육을 고민하는 엄마들을 위해 <엄마는 고슴도치>에서
공감투표에 나섰다. 함께 고민해보자고.

아이 기르기, 참 어렵다. 연예인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KBS Drama 채널의 육아 프로그램 <엄마는 고슴도치>에
서 현영은 똑순이 딸 다은이에게 찔찔매고, 조은숙은 아웅
다웅하는 세 자매에게 진땀을 뺀다. 가만두자니 버릇 나빠
질까 걱정되고, 야단을 쳐도 그때뿐.

양육(보살핌)과 훈육(가르침) 사이에서 오늘도 부모는 고
민한다. “우리 애만 그런가? 다른 엄마들은 어때요?” 그
래서 엄마들에게 물었다. 훈육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어떻게 훈육을 하는지가 궁금하다면 ‘맘스홀릭’ 엄마들
1300여명의 답변을 눈여겨보자.

네이버 카페 ‘맘스홀릭 베이비’(회원수 250만명)에
서 4세 이상 자녀를 둔 엄마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3/21~4/3)

훈육을 하는 편인가?

가끔 한다

6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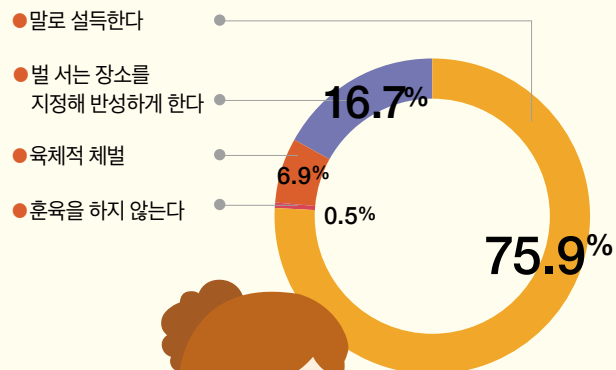
잘 하지 않는다

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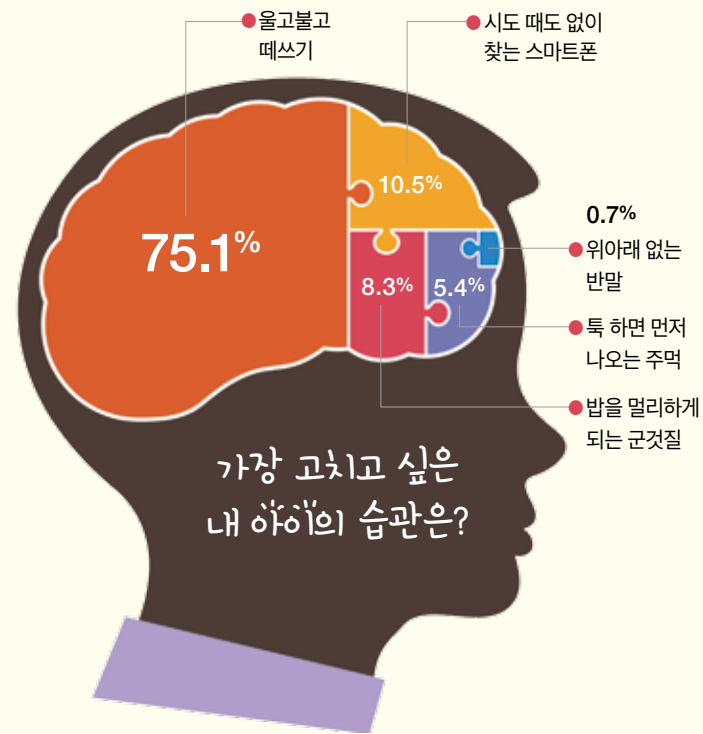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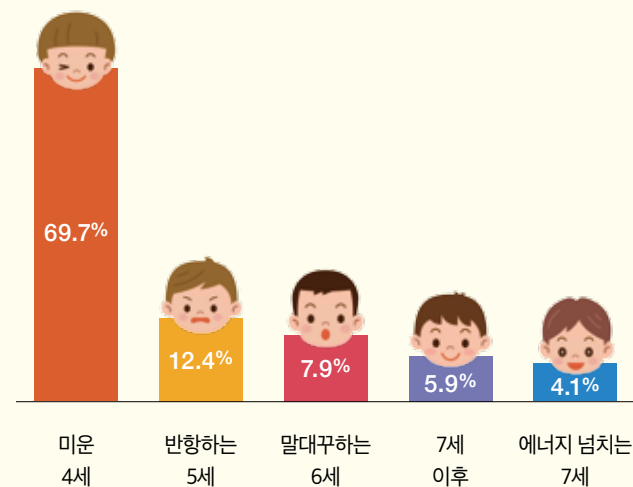
자주 한다

2.6%

아이의 훈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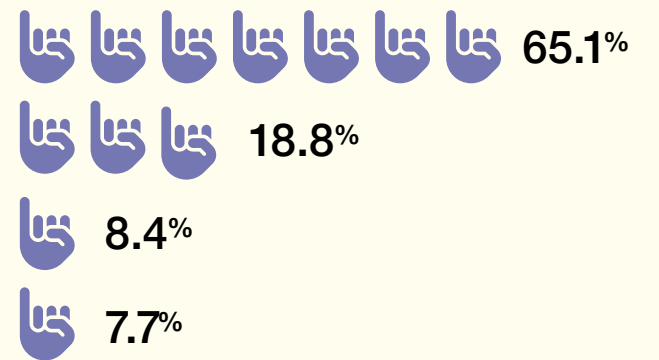


아이를 키우기 가장 힘들었던 나이는?



아이의 부모와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나?

- 다섯 번 중 세 번은 지키려고 한다
- 보상이 있어야 지키려고 한다
- 반드시 지키려고 한다
- 별로 지키지 않는다



‘훈육을 한다’와 ‘하지 않는다’의 비율은 7대 3, 아무래도 훈육 쪽에 무게가 실렸다. 내 아이의 훈육 방법으로는 ‘설득’이 가장 많았고, ‘벌 서는 장소를 지정해 반성하게 한다’가 그 뒤를 이었다.

아이를 키우기 가장 힘든 나이로는 ‘미운 네 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아와 독립심이 강해지고, 호기심이 넘쳐나는 시기이다. ‘싫어’, ‘안 돼’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아이와 주도권 다툼을 벌이느라 실패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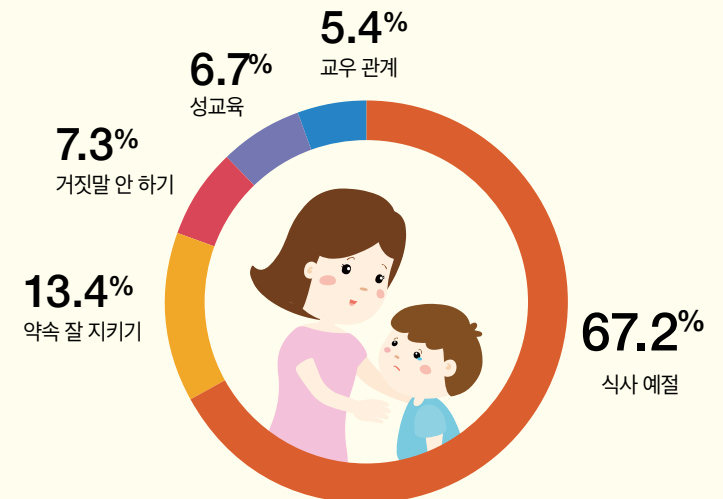
게다가 애가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울고불고하며 떼쓰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 식사 예절을 가르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아이들은 엉덩이가 가벼워 한곳에 오래 있질 못한다. 편식, 군것질은 예사고, 언제 그릇을 엎지르지 모른다. 이뿐이라, 가르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도 마지막 답변에서 희망을 봤다. 아이가 다섯 번 중 세 번은 부모와의 약속을 지키는 편이다. 꼭 지키려 애쓴다는 답도 8%가 넘었다. “내 아이만 그런 게 아니네?” 이것만 알아도 어딘가. 힘내자. 미운 네 살도 곧 지나간다.



속 터지는 육아일기 <엄마는 고슴도치>는 ‘생활 실험’과 ‘거짓말 탐지기’ 같은 재미난 장치를 통해 육아를 함께 고민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화요일 낮 1시 KBS 2TV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아이의 교육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화제의 ‘거짓말 탐지기’ 코너 일반인 참가자 모집

우리 아이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대상 5~8세 자녀
신청서 <엄마는 고슴도치> 홈페이지 ‘신청자 참여 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작성 내용 아이의 이름/나이/성별/거주지
내 아이의 궁금한 점, 육아의 가장 큰 고민 등
사연과 함께 자녀의 최근 사진 첨부
접수 메일 dochmom01@hanmail.net

가족의 달 야구로 함께 놀자

송진우 위원이 투구 자세를, 장성호 위원이 타격 자세를 잡아준다. 'KBS N 스포츠 스쿨' 애기다. 여기에 <아이러브 베이스볼>이 어린이날 공개방송을 연다. 야구로 소통하기 좋은 계절이다.

레전드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야구 클리닉'

온 가족이 즐기기에 야구만 한 스포츠가 없다. 가족의 달을 맞아 'KBS N 스포츠 스쿨'이 올해도 어김없이 열린다. 날짜는 5월 21일 토요일, 장소는 작년과 같은 고양시 리틀야구장이다. KBS N 마케팅본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광고주 가족 60여명을 초대해 3교시에 걸쳐 수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스포츠 스쿨의 일일교사는 KBS N 야구 해설위원들이 맡는다. '한화의 송골매'였던 송진우, '롯데의 캡틴'이었던 조성환, 정교한 타격으로 '스나이퍼'라 불린 장성호 위원이 지도에 나선다. 프로야구 팬들에겐 레전드로 통하는 선수들이다. 여기에 KBS N Sports의 미녀 아나운서들이 가세해 함께 야구를 즐긴다.

수업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 야구경기 규칙에 대한 기초 상식, 포지션별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수업이 시작된다. 운동 전에 스트레칭은 기본. 캐치볼로 몸을 데우며 스킬 컨디션을 끌어올린다.

오후 1시에 시작되는 2교시 '야구 클리닉'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다. 야수와 투수, 2개 조로 나뉘어 수업이 진행된다. 작년 5월 30일로 시간을 돌려보자. 야수 반은 조성환 위원, 투수 반은 송진우 위원이 수업을 맡았다. 송진우 위원이 마운드 옆에서 공 던지는 시범을 보인다. 조성환 위원이 타자석 옆에서 배트의 각도를 잡아준다. 아이들에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다.

오효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아이러브 베이스볼'

KBS Cool FM만 공개방송을 하는 건 아니다. KBS N Sports도 한다. 올해도 작년과 같다.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춰, 원조 야구 매거진 프로그램 <아이러브 베이스볼>(이하 '알럽베')에서 방청객 가족 40여명을 초대해 공개방송을 진행한다. 생방송을 준비하는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은 물론, 레전드 해설위원들도 만날 수 있다.

어린이날, 상암동 KBS 미디어센터의 스튜디오는 팬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오를 예정이다. 평소 TV로만 보던 MC, 해설위원들과 함께 호흡하며 생방에 참여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또 방송이 끝난 후에는 친필 사인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한 아름 안아갈 수 있다.

야구는 혼자만 잘해서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 팀워크가 중요하다. 광고주, 시청자, 팬들의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빛나지 못한다. 가정의 달을 맞아 KBS N이 준비한 '스포츠 스쿨'과 '아이러브 베이스볼 공개방송'으로 함께 야구를 즐겼으면 한다.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놀고 소통하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다.



"투구 폼 좋은데?" 송진우 위원의 한마디에 웃음



"배트는 여기까지" 조경범의 자상한 지도



프로야구 중계 후엔 아이러브 베이스볼



레전드 해설위원과의 셀카 촬영



'알럽베' 공개방송 후 다 함께 활짝

뷰티 멘토로 돌아온 제시카

자주 눈을 맞췄고,
입가에선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한층 성숙하고
따뜻해졌다는 인상을
받았다. '뷰티 멘토'로
돌아온 제시카
이야기다.



소녀시대 탈퇴 후 1년 반 만이다. 그동안 패션 사업과 중화권 활동에 전념해온 제시카가 <뷰티바이블 2016 S/S>(이하 '뷰바')로 돌아왔다. 중국에서 제시카는 뷰티, 패션, 스타일 면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인기 스타로 화제를 몰고 다닌다. 웨이보 팔로어만 450만명이다. 작년 가을 타오바오(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중국 최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K뷰티를 소개하는 뷰티 버라이어티 <서시>에 첫 손님으로 출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뷰티 멘토' 제시카. 이전 이 말이 낯설지 않다. 꾸밈없는 솔직함으로 뷰티 포인트를 콕콕 집어주는 멘토를 누가 싫어할까. '뷰바'로 돌아와서 더 반갑다.

국내 복귀로
'뷰바'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라도?

아이돌 데뷔 때부터 메이크업은 일상이었다. 평소에 워낙 관심이 많은 분야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에게 이것저것 배운 것도 많고, 소녀시대 일본 콘서트 투어 때 내 손으로 직접 헤어와 메이크업을 한 적이 있다. 무대에서 좀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머리 만지고 화장하는 데 세 시간은 걸린 것 같다. 지금 하려면 한 시간이면 되지 않을까?

MC를 맡고 한 달이 지났다.
첫 녹화 때랑 어떤 점이 달라졌나?

일단 편해졌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누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한 회, 한 회 하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정보들이 있다.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MC는 처음인데, 확실히 재미가 있다. 소소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즐기면서 하고 있다.

"리얼이다
아니다를
확실히 전달해
드리겠다"는
말에는 변함이
없나?

그렇다. 내가 입에 발린 말을 못한다. '뷰바'가 상업적으로 가는 건 싫다. 우리 프로는 '생활 밀착형 리얼 뷰티 검증쇼'를 내세우고 있다. '써보고 솔직하게 말하고 평가하자'가 원칙이다. '리얼 뷰티'는 바른 검증에서 나오는 거니까. 제대로 된 뷰티 비법을 알려드리겠다.

평소 어떤 화장을
선호하는지,
제시카만의
메이크업
포인트가 있다면?

매일 방송용 풀 메이크업을 하고 다닐 순 없다. 누구나 같을 거다. 투명하고 깨끗한 피부에 생기 있는 입술? 개인적으로 진한 색조 화장보다 담백한 색,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선호한다. 기본에 충실한 편이다.



우리 프로는 '생활밀착형 리얼 뷰티 검증쇼'를 내세우고 있다. '써보고 솔직하게 말하고 평가하자'가 원칙이다. 제대로 된 뷰티 비법을 알려드리겠다.

패션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의
디자이너로 활약
중이다. 요즘 꼭
빠져 있는 패션
아이템이 있다면?

패션은 뷰티와 같이 간다. 옷에 따라 화장법도 달라지니까. 선글라스는 워낙 좋아하고, 한때 무릎 위까지 오는 하이 부츠에 빠진 적이 있다. 요즘은 빈티지 블라우스가 좋다. 오버 사이즈인데 러블리하면서도 매니시하다. 데님 바지와도 잘 어울린다. 클래식한 걸 모던한 요소와 '믹스&매치'하는 걸 좋아한다. 내 안에 클래식한 취향이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여러
변화가 있었다. 그
속에서 제시카란
사람이 내면에
품고 있는, 스스로
지켜가고 싶은
'나만의 가치'가
있다면?

정을 나누며 오래 보는 분들이 있다. "연습생 때랑 변한 게 없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내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는 하지만, 그분들에게 "한결같다"는 애기를 듣고 싶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요즘은 '엘레강스'란 말이 좋다. 우아하면서 세련된 아름다움을 갖춘 여자가 되고 싶다.

가수 제시카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다. 새
노래는 언제 들을
수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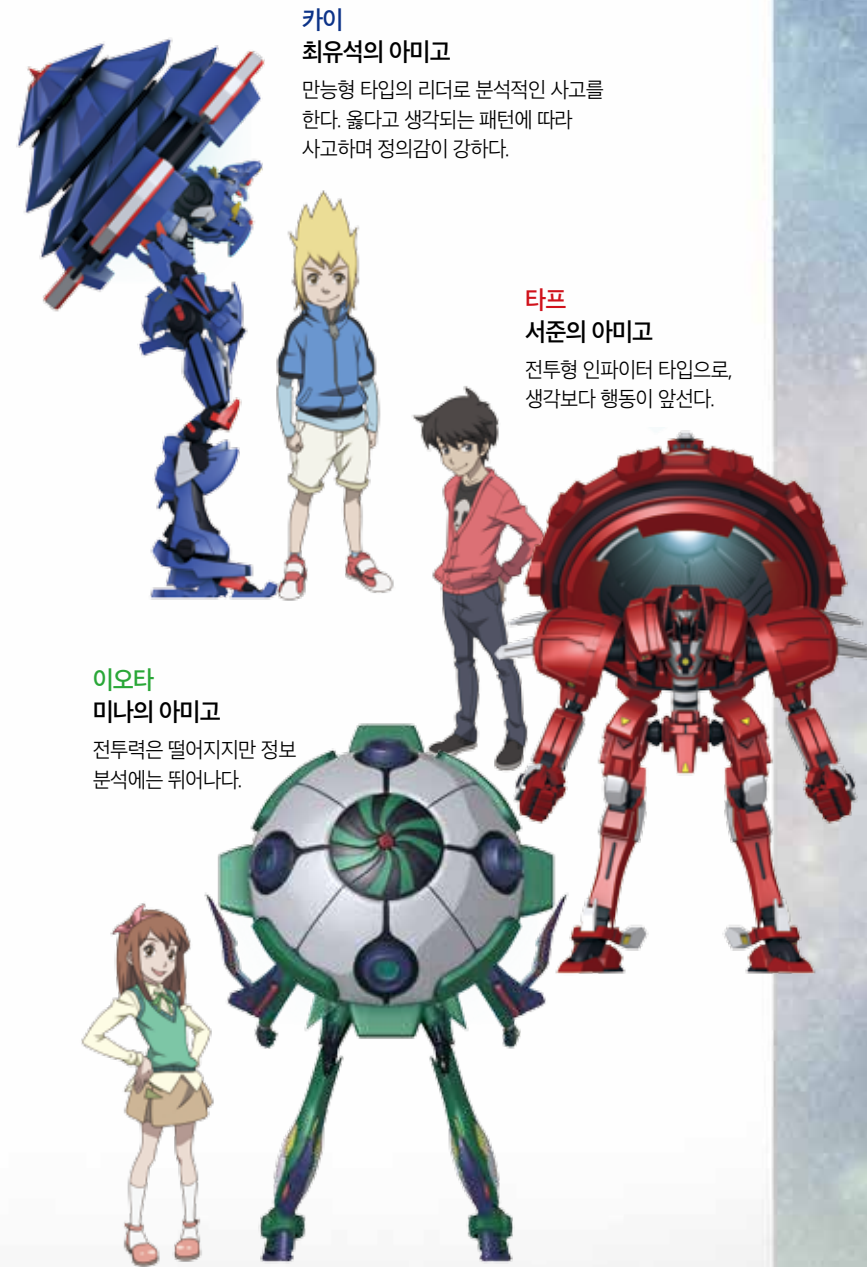
열심히 준비 중이다. 녹음실에서 녹음한 내 목소리를 들으며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한다. 이 부분은 이렇게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드리겠다.

로봇과 인간 두 문명의 충돌

“팽이가 로봇으로 변신한다면?” 로보텍스는 여기서 출발했다. 애니메이션 방송에 맞춰 완구도 출시했다. 어린이날, 팽이 돌리며 놀아보자.

로보텍스는 사람이 조종하는 단순한 로봇이 아니다. 지구인보다 월등한 힘과 과학을 지닌 외계의 금속생명체다. 거대한 팽이 형태의 '스피닝 코어'에서 무한한 에너지를 얻어 활동하는 우주 최강의 존재들. 그러나 이들은 '메인프레임'의 압제에 '창의성'을 가질 수 없는 제약에 걸려 있다.

이에 의문을 품고 지구로 탈출한 카이, 타프, 이오타 일행. '볼칸'이 지휘하는 막강 로보텍스 모성 제1군단이 이들을 쫓으며 흥미진진한 추격전을 벌인다. 그리고 지구에서 만난 유석, 서준, 미나는 카이 일행의 '아미고'(친구)가 되어 그들을 돕는다. <로보텍스>는 액션 어드벤처 애니메이션으로, KBS와 KBS N, (주)아빠셋이 공동으로 기획·제작했다. 캐릭터별 완구뿐 아니라 스페이스, 워프 아레나를 결합한 배틀 상품이 나와 있다. 팽이 돌리며 아이들과 놀다보면 어린이날이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카이

최유석의 아미고

만능형 타입의 리더로 분석적인 사고를 한다. 옳다고 생각되는 패턴에 따라 사고하며 정의감이 강하다.

타프

서준의 아미고

전투형 인파이터 타입으로, 생각보다 행동이 앞선다.

이오타

미나의 아미고

전투력은 떨어지지만 정보 분석에는 뛰어나다.

KBS Kids 월~목요일 낮 12시 방송

ROBOTEX



글 김선영 TV평론가

TV, 육아를 부탁해



속터지는 육아일기 <엄마는 고슴도치>

육아예능은 진화 중이다. 기존 육아예능의 재미에, 공감과 정보까지 더하며 한층 알차고 영리해졌다. 그 진화의 중심에 <엄마는 고슴도치>가 있다.

육아예능은 육아트렌드를 읽어야 성공한다. MBC <일밤-아빠! 어디가?>와 KBS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육아예능 열풍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도 아이들의 귀여움만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육아트렌드를 잘 포착했기 때문이다. 두 프로그램의 성공은 당시 육아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아빠들, 일명 '프렌디'가 늘어나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있었다. 후발 주자인 '패밀리 육아예능' SBS <토요일이 좋다-오! 마이

베이비> 또한 아이 한 명의 육아에 가족 전체가 관심을 쏟는 저출산 시대의 현실을 녹여냈다. 요즘 육아예능 역시 최신 육아트렌드를 담고 있다. 가령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발표한 올해의 육아키워드는 '아키텍키즈'다. 젊은 부모들의 체계적 계획에 따라 길러진 아이들을 가리키는 이 말은 과학적 육아에 대한 관심과 지식 수준이 크게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다. tvN 실험육아예능 <아이에게 권력을>처럼 최근 육아 프로그램에서 실험, 관찰 등의 요소가 강화된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슈퍼맨'을 품은 고슴도치 엄마들

이러한 현실에서 좀더 본격적인 실험컨셉트를 가미한 신개념 육아예능이 바로 <엄마는 고슴도치>다. 아이들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이 프로그램은 거짓말탐지기, 다양한 실험 관찰카메라를 이용해 육아 과정을 지켜보며 전문 분석까지 곁들인다. 이를테면 기존의 키즈, 육아예능에 정보, 교육의 성격을 더한 종합선물세트 같은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부모와 자녀의 일상을 관찰하는 '육아일기' 코너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부모들과 전문가가 함께 관찰영상을 보며 육아 정보를 나누는 부분은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같은 교양프로그램을 연상시킨다. 그간의 육아프로그램 성과를 하나로 합친 셈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실험카메라와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속마음 확인 코너다. 자녀들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출연자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한 아이의 반응을 지켜보며 놀라기도 하고, 의외의 진심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예컨대 1회 때 '낯선 사람이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면?'이라는 상황 아래서 곧바로 문을 여는 아들에 당황하는 번기수와 벨소리를 외면하는 딸을 대견해하는 현영의 대조적 반응은 웃음을 주면서도 '내 아이라면 어땠을까?'라는 호기심과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또 거짓말탐지기 코너에서 "엄마 사랑해"라는 막내딸의 고백에 눈물을 터트리는 조은숙이나 아빠를 'TV 보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아들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번기수의 모습은 부모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끝까지 공감 코드를 유지하며 자리를 잡는다면 또 하나의 든든한 육아지침서를 얻을 수 있을 듯하다.



배구로 쌓은 신뢰

‘겨울 스포츠의 꽃’이란 타이틀은 이제 배구 앞에 와야 한다. 한국배구연맹 구자준 총재는 그 비결로 KBS N의 중계를 꼽았다.

작년 12월, KBS N과 2020-2021시즌까지 5년간 중계권 계약을 맺은 걸로 안다

프로 스포츠에서 5시즌이라는 장기 중계권 계약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KBS N과 한국배구연맹(KOVO)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KBS N은 프로배구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2007-2008시즌부터 전 경기를 중계해왔다. 배구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며, 프로배구가 지금의 인기를 얻게 된 기반이라고 생각한다.

주관방송사 KBS N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국제배구연맹 홈페이지나 세계 각국의 배구 팬들이 올린 SNS로 국내 프로리그의 명장면이 큰 화제가 되었다고 들었다. 작년 V-리그 남자부 경기에서 나온 최부식(대한항공) 선수의 ‘발 수비’ 장면을 카메라가 여러 각도에서 포착한 장면이 대표적이다. KBS N의 배구 중계기술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말이다. KOVO가 세계 배구 최초로 비디오판독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게 된 것도 중계기술 덕분이다. 팬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명장면 포착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었으면 한다.

작년 여자배구에 이어, 올해부터 남자배구 트라이아웃을 시작한 이유는?

이제는 외국인 선수가 연맹에 드래프트 참가 신청을 하고, 이후 미니게임 등으로 기량을 점검한 후 선발하게 된다. 트라이아웃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구단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외국인 선수의 몸값이 지나치게 올랐기 때문이다. 외국인 선수 한 사람 연봉이 팀의 국내 선수 전체 연봉과 비슷해지면 구단 운영도 힘들어진 다. 그런 부담을 줄이고, 국내 선수들의 기량 발전을 돕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 생각한다.



한국배구연맹 구자준 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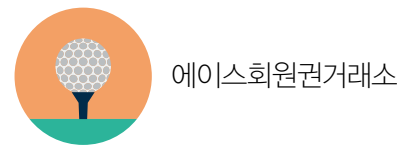
올해 KOVO가 세운 큰 틀의 목표가 있다면?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유소년 배구 육성과 남자부 8구단 창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유소년 배구교실에 꾸준히 투자해 10년 후에는 100개 학교 이상에서 배구교실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리고 현재 남자배구가 홀수(7개) 구단으로 운영되면서 경기 일정 조정에 불편을 겪고 있다. 남자부 8구단 창단에 역량을 집중하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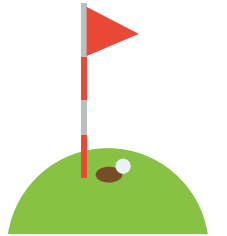
놓칠 수 없는 ‘2016 국제배구대회’ 일정

리우올림픽 여자부 세계 예선	5월 14일~22일(일본 도쿄)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	6월 9일~7월 10일
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	6월 17일~19일(일본) 6월 24일~26일(캐나다) 7월 1일~3일(한국) 7월 8일~10일(포르투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8월 5일~21일



영종도 하늘을 닮은 파트너십

봄 하늘이 파랗다. 주주사로 오랜 시간을 함께한 에이스회원권거래소의 임종운 부사장을 만나 지난 15년을 돌아봤다.



영국의 골프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스코어에 집착하지 말고 가끔은 페어웨이 주변에 핀 장미 냄새를 맡을 줄 아는 여유를 가져라.” 진정한 파트너십은 오랜 인연이 맺어준 여유에서 온다. 에이스회원권거래소는 KBS N의 주주사로 참여해 창사 때부터 함께해왔다. 15년 지기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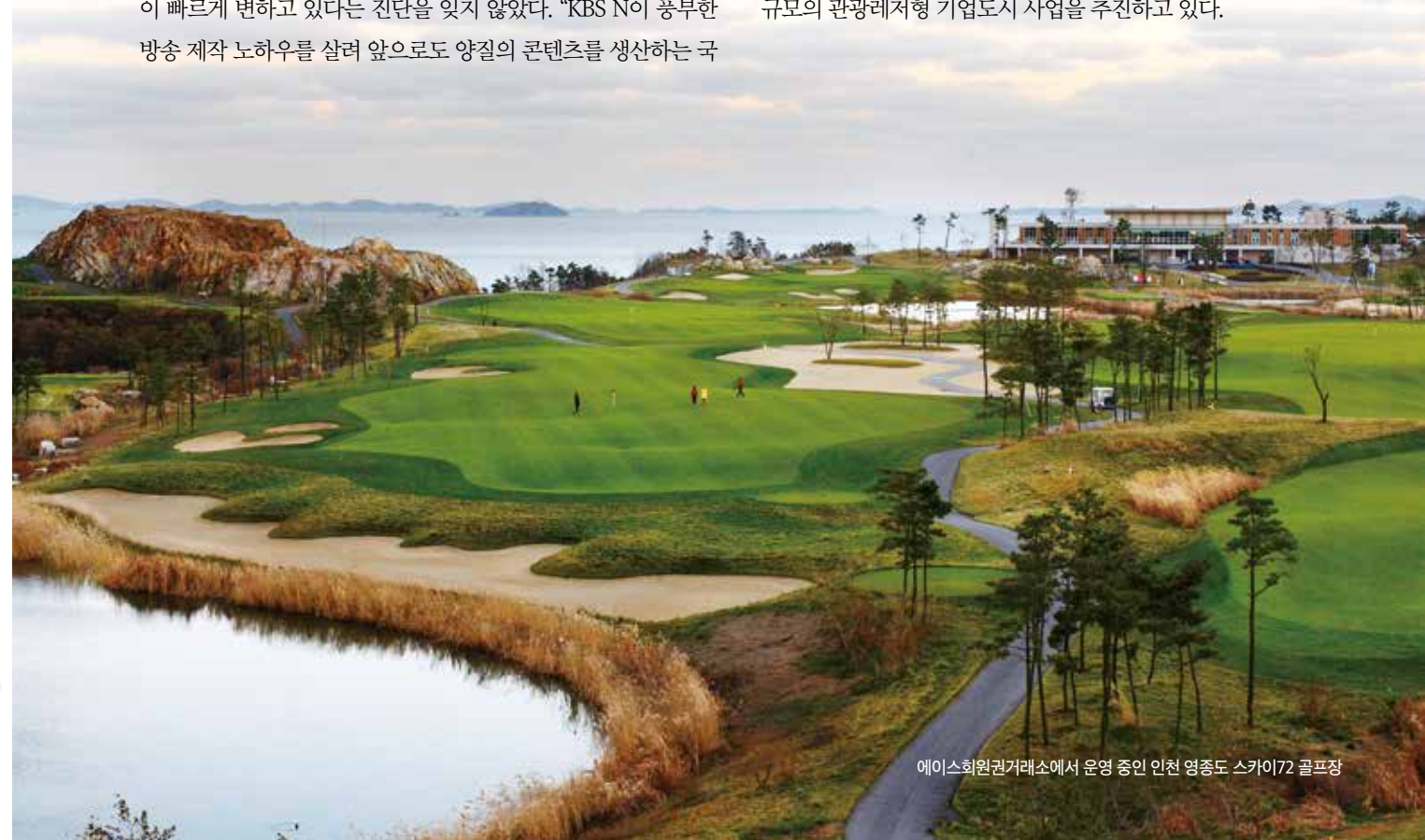
임종운 부사장은 이렇게 말한다. “그동안 초대 지중학 사장부터 금동수, 오수성 등 여덟 명의 대표이사를 지켜봐왔습니다. 일을 참 열심히들 하셨죠. 고민을 거듭하면서 해법을 찾아가고, 그 노고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 니다.”

임종운 부사장은 새로운 플랫폼과 서비스의 등장으로 방송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진단을 잊지 않았다. “KBS N이 풍부한 방송 제작 노하우를 살려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국

내 최고의 미디어그룹으로 성장해가길 바란다”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응원의 인사를 남겼다.

영종도 스카이72 등 골프장 개발·운영에 주력

에이스회원권거래소는 골프 회원권 중개 업무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골프장 건설과 운영, 호텔과 리조트,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등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그동안 눈에 띄는 성과를 내왔다. 특히 인천 영종도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72홀 골프장인 ‘스카이72’와 인근의 ‘네스트 호텔’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크리버 컨트리클럽’과 ‘장수골프리조트’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 자회사인 서남해안레저를 통해 전남 영암에 262만평 규모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이스회원권거래소에서 운영 중인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웃음과 희망으로 파이팅!

KBS N 춘계 체육대회

지난 4월 25일 목동 주경기장에서 2016년 KBS N 춘계 체육대회가 열렸다. 온종일 화창한 날씨가 지속된 가운데 KBS N 직원들은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체육대회는 '웃음이 희망입니다'라는 올해 KBS N 방송지표에 따라 웃음팀(콘텐츠본부)과 희망팀(경영관리실, 정책기획본부, 마케팅본부 연합)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체육대회의 서막을 연 것은 다름 아닌 남자 축구. 메시의 현란한 개인기와 호날두의 무회전 프리킥은 말로만 존재했다. 그래도 너른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시원한 슈팅과 격렬한 몸싸움은 환호성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명승부는 여자 발야구에서 나왔다. 장성호 해설위원은 웃음팀의 발야구 코치로 나섰다, 안치용 해설위원은 심판을 맡아 활약했다. 연장까지 이어지는 접전을 치렀지만 결국 무승부로 끝이 났다. 이어서 줄다리기, 에어보트에 공주님 실어 나르기, 키만큼 커다란 대형바통 들고 이어달리기 등 두 팀 간에 치열한 승부가 이어졌다. 결국 승리의 여신은 웃음팀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사실 어느 팀이 이기든 중요하지 않았다. 다 같이 모여 웃고, 뛰고, 떠들던 따스한 봄날로 기억될 것이기 때문이다. 웃음이 희망이다. 새로운 희망은 하나 된 우리들 마음속에서 자라난다.



- 1 웃음팀 발야구 코치로 나선 장성호 해설위원
- 2 으쌰으쌰, 안애경 공주님을 모셔라
- 3 대형바통 들고 이어달리기
- 4 우승을 향한 의지를 담은 희망팀의 파이팅!
- 5 이지수 아나운서 가까스로 3루 세이프!
- 6 다 같이 발맞춰 하나 둘 하나 둘!

Notice

KBS N 페이스북 좋아요!

facebook

www.facebook.com/happykbsn



타임라인 | 정보 | 사진 | 좋아요 | 더 보기 ▾

이 페이지에서 게시물 검색

95,783명이 좋아합니다

친구에게 페이지 좋아요 요청

정보

http://www.kbsn.co.kr

사진



동영상

KBSN님이 새로운 사진을 추가했습니다.
어제 오전 9:30

#KBSN #좋아요

2016년 4월 25일 현재 '좋아요 95,783개'

흥미진진 KBS N 6채널 소식, 프리미에라가 승자 맞히기 이벤트, <아이러브 베이스볼> 오호주, 이항 아나운서의 월페이퍼 다운로드... '좋아요' 버튼 꼭 눌러 '팔로잉'하세요!
웃을 일 많아집니다.



N pick

덕력 증대 프로젝트

"덕력의, 덕력에 의한, 덕력을 위한 예능" <최강남녀>가
5월 3일부터 본방에 나선다. 영웅동민, 지존상민, 전설재근,
최강일종이 MC로 나서 '입덕의 길'로 인도한다.
전국 덕력 자랑 <최강남녀>는 KBS N Joy 채널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10분에 방송된다.



첫 녹화 현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최강 4MC

태양의 후에
'OX 퀴즈'
정답

- | | | | | | |
|------------|-----------|----------|-----------|-----|------------|
| ① O | ② O | ③ X 참석했음 | ④ X 230mm | ⑤ O | ⑥ X 블랙기 마을 |
| ⑦ X 엄마의 친구 | ⑧ X 왼쪽 어깨 | ⑨ X 민윤기 | ⑩ O | | |

심심한 당신을 위한
강제 입덕 프로젝트

전국 덕력 자랑

최강남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10분 KBS joy 방송

www.kbsn.co.kr